

제3회 대학교육정책포럼

21세기 대학입학관리체제의 발전방안

- 일 시 : 1999. 9. 29(수) 13:30 ~ 17:00
- 장 소 : 사학연금회관



2002학년도 이후의 대학신입생 모집시기 다양화 방안

허 형(중앙대 교육학과)

I. 서론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 안을 내놓았지만 교육제도를 포함한 한국 교육전반에 걸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2002학년도 이후라고 해서 입시제도가 획기적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크게 변화될 전망은 희박하다. 교육부나 대교협, 그리고 각 대학들이 선진 외국의 제도만을 피상적으로 도입하여 2002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전형에 대하여 요란한 계획안들을 발표하기는 하지만 모두 대중요법적인 입시수단에 불과하고, 허구에 지나지 않는 정책들뿐이다. 지금 필자가 다루고자하는 대학 신입생 선발 시기의 다양화 방안도 현대의 교육상황에서는 크게 바뀌어질 것이 없고, 대학입학 전형절차도 별로 특이한 방안이 나올 수 없다.

이는 교육개혁작업 초기에서부터 이제까지 한국교육의 기본적인 체질개선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외국의 교육제도나 교육여건을 도외시한 채,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안들만을 피상적으로 접목시키려는 모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교육개혁 작업은 학제개편,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정보통신 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활성화, 현행 고등학교의 다양한 계열별 목적 고등학교에로의 과감한 개편, 통합고등학교의 설치, 학생들의 다양한 생애계획(career planing)과 관련한 다양한 복선제적 교육과정운영, 각종 표준화 학력검사, 표준화 심리검사, 자격고사 등과 같은 다양한 객관적 측정평가 도구의 전문적 개발, 고등학교 학교장에게 권한과 책임의 부여, 고등학교 입시선발고사의 부분적 부활 등, 한국 교육의 기본적인 체질 개선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대학입시 방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교육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는 모집방법의 다양화나 전형절차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시 모집의 확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기만 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각종 표준화

학력검사나 학업적성검사, 직업적성검사, 표준화 심리특성 검사, 각종 특기적성검사, 자격증 인증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측정도구나 평가도구가 개발되지 않고는 학교장 추천, 교육감 추천, 동창회장 추천 등과 같은 것도 결국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며, 모두 담임교사에 의한 성적 순위별 추천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생애계획, 직업에 연결된 대학입시의 준비를 충실하게 하면서 대학입시만을 위한 비생산적인 시험지옥에서 탈피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대학, 그리고 고등학교가 효율적인 입시정책 마련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노력하면서 당면한 입시환경을 단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입시정책의 지나친 개선방안을 위해서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훼손되거나 교실교육이 황폐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보통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II. 대학 입시정책과 고등학교 교육환경의 변화의 필요성

다가오는 21세기는 국가간의 경쟁력이 다각적으로 심화될 것이며, 이러한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knowledge based society)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도 21세기의 한국사회가 국제경쟁력이 있는 지식기반사회로 변모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저마다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대체적으로 모든 직업의 분야에서 필요할 것이다. 고급의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제조업, 생산직, 그리고 선반공, 배관공, 목수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직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전문가의 양성에 공헌해야 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준 전문인의 양성에 주력하고 있고 대학에서의 전공영역에 준비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 과정에 속하는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고, 학생들이 선택한 한 두 과목의 시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대학에 입학하게 한다. 우리 나라처럼 학생들의 장래의 직업이나 전공학문영역과는 대체로 무관하게 모든 과목을 입시 준비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 나라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장래의 직업준비도 시키지 않으며, 학생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학문영역의 대학의 준비도 못시키면서 대학 입시만을 위한 입시지옥에 빠뜨리게 하고, 결국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흥미를 상실하게 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의 지식기반사회건설은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대학입시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고등학생의 대학이나 학과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하게 해야 한다.

현재의 우리 나라의 대학입시 정책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나라의 대학들이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고, 교육부도 대학의 관점에서 입시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대학교육협의회도 이 기구의 성격상 대학의 측면에서 입시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이나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대학입시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전국 고등학교 교장회의, 사립학교 교장회의, 각종 교직원단체, 학부모 연대 등과 같은 곳에서 학생의 대학입시에 대하여 강도 높게 논의가 전개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여 입학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영역의 특정학과나 기능이 우수한 학생이 곧 바로 어느 대학의 특정학부나 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특별전형에 의한 입시정책의 범위를 넘어서 모든 교과, 모든 기능으로 범위를 넓혀야 하며, 수시 모집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수능시험 몇 %, 내신성적 몇 %, 논술 몇 %, 면접 몇 %의 합산에 의한 까다로운 방법에 의해서 입학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대학도 학과 교수들의 합의에 따라 입학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예체능 계열의 학과, 외국어 계열의 학교, 각 자연계열의 학과로 확대되어야 한다.

2. 신입생의 선발은 대학의 학과나 학부의 결정을 강조해야 한다.

신입생 선발에 관한 결정이 대학의 종합적인 입시전략 보다는 해당 학과나 전공학과 또는 학부의 교수들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학의 각 전공학과는 나름대로 특수한 학문영역이기 때문에 신입생의 선발도 학과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공학과의 특수성이 한 대학의 전체적인 입시정책의 큰 틀 속에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전공학문 영역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신입생 선발이 이루어진다면 신입생 선발방법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다양해질 것이

다. 미국의 각 대학들이 학과장에 의한 학과의 결정에 따라 신입생이 결정되고 장학금도 제공되는 것이다. 학과교수들이 결정하여 입학처에 통보하는 형식을 따라야 한다.

3. 각종 학력평가를 위한 전문적인 표준화 검사가 개발되어야 한다.

신입생의 학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일회 시행의 획일적인 시험성적에 의하여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의 학부나 학과의 특성에 알맞은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의 종류나 검사의 종류를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미국의 SAT II, 영국의 GCE A-Level, GCE AS-Level, 독일의 아비투어 시험,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시험, 일본의 대학별 학력고사 등의 경우 지원자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지원하느냐에 따라 시험을 치르는 학과목의 종류, 과목의 수 등이 달라지고 한 두 과목에 한정한다. 학생의 대학과 학과의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유형과 수준의 검사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독일, 프랑스의 경우, 학력평가가 주로 주관식 문항에 의한 절대평가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형의 검사나 평가방식도 다양하게 제공한다면 학생의 선택권은 더 많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정시모집이 아닌 수시모집의 경우라면 주관식 평가의 채점도 비교적 오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신뢰성 있게 채점될 수 있을 것이다.

4. 지원자의 다양한 전형자료가 선발에 활용되어야 한다.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학생의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나 학업성취도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대학과 지원학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이는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이 학력에만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개인적 특성, 전공영역에 대한 학습동기와 학습흥미, 포부수준, 성취동기, 기타 특기사항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다 총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서 선발해야 한다. 이러한 선발은 지원자의 단순한 합격, 불합격의 의사결정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 전공 학문영역마다 특성있는 학문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해야 한다.

5. 고등학교 교사의 내신평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학들이 고등학교 교사의 추천서나 상담교사의 평가의견서를 중요한 전형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대학 지원자격 시험인 GCSE 시험에

교사평가를 포함시키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바깥로레아 시험의 출제와 관리, 채점, 사정의 모두를 고등학교 최종학년 담당 교사들이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독일의 아비투어 시험도 고등학교 최종학년의 교사들이 출제하고 채점한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의 내신성적을 전형자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의 비중을 서로 다를지라도 교사에 의한 내신평가는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원자에 대한 교사의 평가 결과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풍부한 자료에 근거하여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인 동시에 평가과정에서 교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가장 신뢰롭지 못하다는 특성을 지니는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사의 주관성과 편견성의 개입을 최대한 제한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교사의 내신 평가자료를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6. 수학능력시험 II를 포함한 다양한 표준화 검사가 개발되어야 한다.

미국의 SAT II, ACT, Medical College Test, Law School Test, 독일의 아비투어 시험의 각 교과별 시험, 프랑스의 바깥로레아 시험의 각 교과별 시험과 같은 각종 전공 영역의 교과별 학력검사나 표준화 검사가 개발되어야 수시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고등학교 교장 추천, 교육감 추천, 동창회장 추천 등이 있으나 이것은 단지 말에 불과할 뿐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이 작성한 내신 성적이나 모든 교과목의 평균과 석차에 의해서 추천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교과영역별 학력고사나 특수한 영역의 전문시험을 통하여 추천하는 학생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평가하여 추천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수능시험은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의 고차적인 문제해결력 검사와 영어시험으로 전환하여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의 수준만을 평가하여 등급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험들 중에서 학생들은(수능 I)과 전공학과에 따라 하나 내지는 두 과목의 시험만을 준비하게 하면 된다.

7.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의 과학과, 외국어고, 정보통신고, 농고, 상고, 공고 등은 본래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해당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해당특수 목적에 맞는 대학이나 학과에 지원하게 하고, 가중치를 주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과학고는 1970년대에 처음 실시될 당시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졸업생들은 그 실력에 따라 해당분야의 대학이나 학과

에 우선적으로 선발되어야 한다. 특수 목적고등학교들이 일반 고등학교와 똑같이 입시위주의 교육을 해서는 안되며, 졸업생들은 해당 전공대학이나 해당 학과에 입학할 때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 설립목적에 맞는 대책이 될 것이다. 현재의 입시정책이 학생들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학생들은 전공대학에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게 한다면서 특수 목적고를 특수 목적에 맞게 운영하지 않는다거나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정책의 이율배반적인 현상인 것이다.

8. 문학, 예체능, 외국어, 컴퓨터영역의 능력을 공인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전문능력과 지식을 객관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국가나 대학, 공공단체에서 실시해야 한다. 각종 백일장 대회, 음악 콩쿠르, 미술대회, 컴퓨터 경연대회, 외국어 시험 경연대회, 수학 경시대회, 과학전시대회를 개최하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공인된 분야의 대학이나 학과에 지원할 때에는 수시 모집의 절차에 따라 대학에 조기에 입학이 결정되고 자신의 전공에 맞는 공부를 남은 고등학교 시간에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들을 위해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9. 대학은 각 학과별 전형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 공포해야 한다.

학생들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은 입시전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록한 책자를 미리부터 발간하여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작업은 교육부나 대교협이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10. 경쟁력이 지나친 대학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자를 추천에 의하여 선발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경쟁력이 지나치게 많은 의학대학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자 가운데서 추천해서 입학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2점의 성적순으로 선발할 이유가 없다. 우리 나라도 국립대학이나 일부 명문대학에서는 법학, 의학, 경영학 등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수능시험성적과 학과내신성적의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 가운데서 추천으로 선발함으로써 대학을 성적순에 의하여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립함으로써 학생들의 입시지옥을 면하게 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Ⅲ. 대학 신입생 모집시기의 다양화 방안

1. 2002학년도 이후

2002년에 대학입시를 치를 학생들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현재의 6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받을 학생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교육과정의 특성상 다소 제한적인 모집시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005학년도 대학입시를 치를 현재의 중학교 1학년부터는 7차 교육과정으로 교육받을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양한 수시 모집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앞장에서 제시한 정책들이 착실하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2002학년도부터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초기에 조건부 입학이 허용되고 남은 고등학교 기간을 입시만을 준비하는 입시지육이 아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에 결정된 학생들은 자기 전공에 대한 예비적 교육으로 학습 흥미와 학업 적성에 맞는 능동적인 학습을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신의 직업준비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02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는 소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수시 모집의 형태로 대학에 입학이 결정될 것이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정기모집으로 1월과 2월의 2개월간에 걸쳐 대학을 지원하고 입학이 허가될 것이다. 현재의 6차 교육과정으로는 전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수능시험 성적발표가 되는 12월 이후라야 학생 생활부의 기록이 완성될 것이므로 대학의 모집시기는 1~2월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2005학년도 이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02년도부터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05학년도부터는 대학 신입생 선발방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의 구성은 고등학교 1학년에 국가 기초 공통과정이 끝나면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는 다양한 선택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직업의 선택이나 대학의 전공선택에 가까운 선택과정을 집중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수능 I(공통)과 수능(Ⅱ)의 한 두 과목(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대체적으로 지정하는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하여 그 성적을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의 내신성적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능 I은 학생에 딸 고등학교 2학년부터 충시할

수도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의 지원은 현재의 미국에서처럼 학생에 따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지원할 수 있고 입학이 허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의 정시모집은 없어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월까지 대학의 무시험전형에 의한 대학의 전형이 모두 끝날 수 있을 것이며 추가적인 모집은 그 이듬해 7월과 8월에 추가적인 모집에 의해 나머지 여석이 채워지게 될 것이다.

IV. 한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진학 및 내실있는 직업교육 및 생애계획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현재의 6, 3, 3, 4의 학제를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 대학 4년의 학제로 개편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3년의 8년 동안에 국가 기초 공통 교육을 강조하여 교육하고, 고등학교 4년 동안에는 준 전문교육과 직업교육을 강조하여 교육한다면 준 전문교육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대학의 전공학과에 진학할 수 있고 직업교육과정을 받은 고등학생들은 2년제 전문대학이나 직업의 세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체제나 교육과정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직업의 세계에 나가기에는 부족한 교육과정인 것이다.

2. 현재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제도는 폐지하고 계열별 통합고등학교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계열별 고등학교는 인문계열,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기술계열, 농림수산계열, 정보통신계열, 예능계열, 체육계열 등으로 나누고 기초 공통교육과정과 준 전문교육과정 및 직업교육을 위한 선택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각 계열별 고등학교와 대학의 전공학문간에 자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며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나 국가주관의 시험에 의해서 무시험의 대학입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3. 고등학교 교사의 자격도 전 학문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의 사범대학에 설치된 교사교육으로는 21세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그 범위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하여 대학에 개설된 모든 전공학문영역의 학생들에게 교직과정의 이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전공분야의 교사자격을 미리 확보해야 한

다. 교사로의 임용은 개인의 희망과 임용고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현재와 같다.

이상과 같은 제도가 확립되면 대학입시의 과열현상이 해소되고 대학의 무시협 진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영역에 따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고 내실 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과 흥미, 적성과 필요에 따른 역동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학교는 즐겁고 내실 있는 교육기관으로 변모하여 교육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002학년도 이후 대학입학 전형절차의 효율화 방안

서 정 화 (홍익대, 교육개혁추진단장)

대학입학제도는 초·중등학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를 규제할 뿐만 아니라 학교 경영이나 교육행정 운영, 나아가서 국민의 의식과 생활 양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대학 입시제도는 한국교육의 脈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인지 대학입시제도 운영이야 말로 학생, 학부모는 물론이고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흔히 ‘입시제도에 관한 한 4,500만 국민이 다 전문가’라는 말도 이런 데에 연유하는 것이 아닌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관계 당국에서는 그 동안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하여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욱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입학전형제도는 선발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 그리고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다음 몇 가지가 강조되고 있다.¹⁾

첫째,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각 대학의 건학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은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둘째,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시업무 중복으로 인한 경비가 많이 들고 낭비를 가져온다거나 복잡하게 운용됨으로써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고등학교나 대학에서의 행정 관리상의 지나친 번거로움이나 불편을 가져와서는 곤란하다.

셋째, 초·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운용형태나 모습이 실질적으로 지배·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입학전형제도로 인해 중·고등학교 교육이 파행적이고 비정상적 운영을 초래한다면 이 또한 곤란하다.

1) 이종재 외,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5.

이상과 몇 가지 요건들 중에서 종래보다 상대적으로 보아 대학의 자율성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효율적 관리측면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특히 추가합격자 선정과정이 지리하여 지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대학에서는 관리상의 번거로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소론에서는 2002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전형절차 상의 개선점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 대학입학 전형절차의 발전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전형제도는 12차례의 크고 작은 변천과정을 거쳐왔다.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변천내용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학별 단독시험제(1945-1953)

해방이후 8년간 대학입시는 총·학장회의 또는 대학 간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되었다.

- 전형방법: 대학별 선발 시험
- 시험형태: 필기
- 시험과목: 필답고사, 신체검사, 면접고사 병행
-필수(국, 영, 수, 사), 선택(실업과목 중 택1)
- 지원시기: 전기, 후기

2.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제, 대학별 고사병행(1954)

‘대학입학자 선발고시위원회’의 주관 아래 국가연합고사제를 실시하였고, 대학별 고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 전형방법: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자격고사), 대학별 시험(본고사)
- 시험형태: 필기
- 시험과목: 연합고사, 본고사

- 연합고사: 필수(국, 영, 수, 사), 선택(과학, 실업 중 택1)
- 본고사: 국, 영, 수, 선택1
- 지원시기: 전기, 후기, 추가모집

3. 대학별 단독 시험제: 무시험(내신제) (1955-1961)

대학별 단독 시험제를 실시하면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내신제가 운용되었다.

- 전형방법: 대학별 선발 시험, 고교내신성적
- 시험형태: 필기
- 시험과목: 필수 4 이상(국, 영, 수, 사, 과), 선택 1 이상(대학이 지정)
- 지원시기: 전기, 후기, 추가모집

4. 대학입학 자격고사제(1962-1963)

1962년도에는 대학별 시험이 없이 국가고시제만으로 학생선발이 이루어졌으며 1963년에는 국가고시제와 대학별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전형방법: 국가고사+대학별 본고사
- 시험형태: 일반전형: 필기(4지선다), 특별전형(서류심사+적성검사)
- 시험과목: 필수(국, 영, 수, 사, 과, 실업(가정)), 선택(계열별 1과목)
- 지원시기: 전기, 후기, 추가모집

5. 대학별 단독시험제(1964-1968)

대입 국가 자격고시제는 정원 미달사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자 각 대학은 필기시험 이외에도 진학 적성검사, 신체검사, 면접 등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였다.

- 전형방법: 대학별 선발 시험
- 시험형태: 필기(객관식, 주관식의 절충 형태)
- 시험과목: 필수(고교교육과정에 따라 대학이 결정), 선택(계열별 특성 고려)
- 지원시기: 전기, 후기

6. 대학입학 예비고사 및 본고사 병행(1969-1980)

예비고사는 대학 응시 자격고사의 성격뿐만 아니라 학력고사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예비고사와 병행하여 대학별 본고사가 실시되었다.

- 전형방법: 예비고사(초기: 자격고사, 후기: 선발고사), 본고사, 고교내신
- 시험과목: 예비고사(객관식 4지 선다형), 본고사(주, 객관식 혼용)
 - 필기시험: 예비고사(고교교육과정상의 대부분의 과목), 본고사(주로 국, 영, 수)
- 지원시기: 전기, 후기, 추가모집

7. 예비고사, 고교내신 병행(1981)

대학 본고사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자 1981년부터 대학 본고사를 폐지하고 고교 성적과 예비고사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다.

- 전형방법: 예비고사(본고사 폐지), 내신, 실기(예, 체능계)
- 시험과목: 필기고사(객관식 선택형), 실기고사(예체능 특기자)
 - 필기시험: 고교 교육과정상의 대부분의 교과목
- 지원시기: 전기, 후기(추가모집 불허)내에서 무제한 복수지원

8. 학력고사, 내신병행(1982-85)

대학입학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예비고사는 자격고사로서의 기능이 대폭 약화되자 1982년부터 대학입학 예비고사는 대학입학 학력고사라는 명칭으로 대체되었고, 내신제를 병행 운용하였다.

- 전형방법: 학력고사(합격선, 응시계열, 지역제한 철폐), 내신, 실기(예체능계)
- 시험형태: 필기고사(객관식 선택형), 실기고사(예체능특기자)
- 시험과목: 고교 교육과정상의 대부분의 교과목
- 지원시기: 전기, 후기, 추가모집

9. 학력고사, 내신, 논술 병행(1986-87)

대학입학 학력고사가 객관식 출제형태에 치우쳐 학생의 사고력 발달을 저해하고 대학의 자율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일게 되자 1986-87년에는 대학별로 論述考査를 가미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 전형방법: 학력고사, 고교내신, 논술고사(탈교과적 성격)
- 시험형태: 필기(객관식+주관식 논술고사), 실기(예체능계)
- 시험과목: 86년(16-17개 과목), 87년(9개과목(필수5, 선택4)축소)
- 지원시기: 전기, 후기, 추가모집

10. 학력고사, 내신, 면접 병행(1988-1993)

논술고사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1988년부터는 논술고사를 없애고 대학 입학 학력고사의 내용을 개선하여 주관식출제를 가미하게 되었고 학력고사 출제는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시험관리는 대학에 일임하게 되었다.

- 전형방법: 학력고사, 내신, 면접고사(논술고사 폐지), 실기(예체능지원자)
- 시험형태: 필기(객관식+주관식 논술고사), 실기(예체능계)
- 시험과목: 9개과목(필수5, 선택4)
- 지원시기: 특차, 전기, 후기, 추가모집
- 지원방식: 선지원 후시험

11. 대학수학능력시험·내신 및 대학별고사(1994-1996)

중래의 학력고사를 대체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와 고교내신성적, 대학별고사가 4가지 유형으로 종합되어 운영되었다.

- 전형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 내신, 대학별 고사
- 시험형태: 수능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대학별고사(필답, 실기, 실험)
- 시험과목: 수능(범교과적 내용으로 5개영역), 대학별고사(주로 국,영,수 편중)
- 지원시기: 특차, 전기, 후기, 추가모집으로 복수지원 기회 보장

12. 수능, 학생부, 대학별 고사 병행(1997-현재)

1997년부터 수능과 학생부, 대학별 고사가 병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전형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부, 대학별고사
- 시험형태: 수능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단답형)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구술, 적·인성검사)
- 시험과목: 수능(범교과적 내용으로 4개영역), 대학별고사(주로 논술, 수능가중치)

- 지원시기: 특차, 정시(모집시기를 4개군으로 구분, 분할모집), 수시, 추가모집으로 복수지원 기회 확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동안의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 및 엄정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여, 그리고 초·중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발전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입시제도는 단순히 교육적 상황 뿐 아니라 경제적인 형편은 물론이고 사회의식 및 가치체계와 정치적인 상황 등 제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운용되어 왔다.

어떻게 보면, 대학입시에서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용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대입제도 운영의 일관성 결여, 정부주도의 획일적 운영, 즉흥적 대중요법식 처방, 그리고 지나친 객관성과 신뢰성 강조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²⁾

II. 대학입학전형제도운영의 평가

현행 입시제도의 골격은 1985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제시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방향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당시 제시된 입시제도의 장기적 발전 모형은 다음과 같다.³⁾

○ 개별대학은 대학의 특성에 따른 교육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입학전형제도를 운영한다.

○ 개별대학은 학생 選拔의 準據로서 고등학교, 대학, 제3의 기구 또는 정부기관 등이 실시한 전문적인 평가결과를 자유스럽게 활용한다. 즉, 전형자료의 다양화와 개별대학에 의한 전형방법의 자율을 최대화한다.

○ 개별대학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영역에 대하여 영역별 고사, 실기고사, 구술고사, 면접법 등의 독자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다.

○ 개별대학은 매년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그리고 자유로이 학생을 선발한다.

2) 이종승,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입논술고사의 과제와 대책”,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996.

3) 교육개혁심의회, 「교육개혁종합구상」, 1986.

이러한 모형 내지 방향 하에 제시된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별대학의 입학전형은 대학교육적성시험(대학교육적성시험으로 발전되기 이전에는 대학입학학력고사)성적, 고등학교내신성적, 대학별평가성적 등을 다양하게 참고하여 대학의 재량에 따라 사정한다.

○ 대학별 평가는 대학교육 적성시험 성적 등과 같은 전국 공통적도의 평가자료 이외에 개별대학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타 영역의 전형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의 보충적 성질을 가진다.

○ 대학별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는 대학은 필요에 따라 입학전형범위를 예비전형과 본전형으로 나누어 전형할 수 있으며, 예비전형에서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의 성적이나 고등학교 내신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초과 선발하며 여기에서 선발된 지원만이 본전형의 대상이 된다.

○ 발표대회나 경시대회등을 통하여 나타난 영재나 특기 또는 대학교육발전을 위한 기여도 등도 입학사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대학입학학력고사”를 점차적으로 범교과적인 학업적성의 평가인 “대학교육적성시험”으로 발전시킨다. 대학입학학력고사 또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은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에서의 학업성적 가능성을 준거로 하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측정하는 기능도 가질 수 있다.

○ 대학별 평가는 면접 결과를 점수화하는 등 대상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다.

○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교과성적 및 출석성적 뿐만 아니라 행동발달, 특별활동상황과 담임교사 추천 등이 포함되는 고교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하며 개별대학은 독자적인 활동방안을 강구한다.

○ 고등학교 등의 각급학교는 평가기능과 추천기능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교개심’의 권고안은 그 동안 교육부에서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큰 틀을 제공하여 온 셈이다.

그러다가 지난 1995. 5. 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신교육체제 설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Ⅰ)에 ‘국민이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가 제시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

획일화된 암기위주의 입시준비 교육, 과열과외 현상으로 인한 학교교육이 공동화 현상,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제도를 개선하되, 국·공립대학은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사립대학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은 1997학년도부터 필수 전형자료로서 종합생활기록부(후에 학생생활기록부로 바뀜), 선택 전형자료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 면접, 실기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한편, 사립대학은 1997학년도부터 자율적으로 학생선발기준과 방식을 정하여 선발하되,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① 초·중등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② 국민의 사교육비(과외비) 부담을 과감히 축소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 ③ 각 대학은 학생 선발방식과 기준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예고하여 학생, 학부모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학생선발기준과 방식이 공신력을 갖도록 유도하고(예: 대학평가시 학생선발기준과 방식 등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재정지원과 연계 등), 그 약속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한다.
 - ⑤ 각 대학은 고등학교에서의 교과 선택폭이 확대됨에 따라 학생이 자신의 진로 선택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방식을 전공분야별(학부 또는 학과 등)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 그리고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학생선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모든 대학은 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와 연계하여 학생을 연중 어느 때나 모집할 수 있게 하고, 대학들이 일정 기간에 모집하는 경우에는 선발 일정을 다르게 하여 실질적인 복수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예: 추첨제 또는 면접 날짜 예약제 등).

이외에도 산업체 근로자·장애자 등에 대한 입학 전형시 우대, 농어촌 학생 지역 할당제 등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1995.

이상의 내용에서 강조되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필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자는 원칙을 담고 있다. 말하자면 대학과 교수, 교육행정기관 등 공급자 중심으로부터 학생학부모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종전에는 1년에 1번 시험을 치루어 만약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재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교개위 입시제도 개혁안에서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인 복수지원 기회를 확대 제공하도록 하였다.

둘째, 대학입시운영의 자율화, 다양화를 지향하고 있다. 대학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전형자료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 자율적인 학생선발을 허용하고 있다.

셋째, 대학이 사회의 公器로서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테면, 대학입학전형은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사립대학의 경우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및 사교육비 부담 축소, 학생선발 방식과 기준의 예고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교육개혁심의회 및 교육개혁위원회의 개선방안은 1997학년도 이후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Ⅲ. 주요국의 대학입학 전형 절차

주요 선진국의 대학입학전형절차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는 미국을 비롯한 몇 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⁵⁾

5) 김신복, 강무섭, 「고교 및 대학 입학 전형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총, 1998.
이종재 외, 「대학 입학 전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5, 정우현 외, 「대입원서 접수, 등록제도 개선 방안 및 표준 서식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6.을 주로 참조

1. 미국

가. 전형자료

미국에서의 학생선발방식은 州 및 개별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전형자료로서 중등학교의 내신서를 중시하고 있다.

학생선발은 무시험 전형과 경쟁적인 시험전형으로 구분되며, 이 때 무시험 전형으로는 중등학교 이수과목과 이수 단위의 일정조건을 설정하고, 그 성적과 이수상황을 기준으로 입학여부를 결정한다. 또 州에서 인정하는 고교졸업자는 원칙적으로 입학할 허용하는 개방형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각 대학은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척도를 활용한 종합적인 전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일정 수준 이상의 고등학교 성적으로서 평균점수 혹은 순위 백분율을 활용한다. 지정 과목의 이수 단위로서는 영어, 수학, 과학, 제2외국어 등의 이수년수를 감안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표준화 테스트 성적을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면접결과라든지 추천서, 소논문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우수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교성적, 고교교사들이 추천서, 면접결과, 표준화테스트 점수를 기준으로 적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나. 전형방식

먼저, 대학희망 희망자 전원을 입학시키거나, 고교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는 전원 합격시키는 개방형을 취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입학요건으로서 정하는 일정수준의 학력 내지 자격을 충족하는 입학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전원 입학, 또는 선착순으로 선발하는 기준 이상 합격형 대학전형 방식을 취하는 대학이 있다. 그리고 성적자료, 고등학교에서 제공한 자료, 지원자의 제출서류(자서전, 활동기록, 신상 명세서, 소논문 등), 면접결과, 추천서의 내용, 입시담당 전문직원 등의 조사자료, 지원자의 속성 중에서 하나 또는 복수의 자료를 토대로 입학사정 전형기준에 미흡한 경우 지원학생의 학습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적인 입학사정을 하는 경쟁형 전형방식을 취하는 대학이 있다. 미국 대학 전체 수에서 전형방식에 있어 개방형은 34%, 기준이상 합격형 56%, 경쟁형 8%, 기타 2%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대학에서는 입학관리처 또는 입학위원회가 총괄적인 입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학과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세밀하게 검토한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관리처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입학자격을 충족시켜야 학과에서 고려되는 입학심사를 받을 수가 있다.

2. 영국

가. 전형자료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중등교육수료자격고사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시험등급, GCE A-level(General Certification of Education Advanced Level) 시험등급, 내신점수, 학교장 추천서, 담임교사의견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결과 등이 전형자료로서 사용된다. 이 중 내신 점수는 등급을 산출하여 별도의 전형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GCSE 필기시험 점수에다 내신 점수가 가산되는 방식으로 GCSE 시험이나 GCE A-level 시험의 등급결정에 영향을 준다. 학교장 추천서, 면접결과, 입학원서에 기입되는 담임교사의 의견서 및 학생자신의 자기 소개서도 보조 자료로 사용된다.

나. 전형방식

대체로 시험과목은 3~4 개로 논술형으로 치루어지며, 지원 대학 및 지원학과에 따라 어떤 수준의 과목을 몇 가지나 준비해야 하느냐가 달라진다. 입학에 관한 상세한 선발기준을 오래 전에 공고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대학입학 안내책에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은 중등교육 기간동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공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효율적인 입시관리를 위해 입시관리기구(UCAS : Universities & Colleges Admissions Services)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각 대학별 입학구비서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UCAS에 지원서를 접수시키는데, 지원서에는 전술한 GCSE, GCE 등의 필요한 성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UCAS는 학생의 지원서를 지원대학에 송부한다.

Route A에는 6개 대학까지, Route B에는 4개 대학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Route A 에서의 대학은 UCAS의 지원서, 중등학교 내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학여부를 결정하고 Route B에서는 Route A에서의 전형자료 이외에 대학별 면접을 시행한다.

그리고 대학이 합격자를 UCAS에 통보하면 UCAS에서는 합격 혹은 불합격 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한다. 이때 학생이 지원한 우선순위에 의한 대학을 순차적으로 통보하고, 불합격된 원서는 그 다음 지원대학에 순차적으로 회부한다. 그러나 학생이 지원한 전 대학에 불합격할 경우 재수를 하거나 대학진학을 포기하게 된다.⁶⁾

6)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학사개혁안 추가 설명 자료”, 1998.6.

3. 프랑스

가. 전형자료

대표적인 대학입학 전형자료는 바칼로레아(Baccalaureat)로 국가시험의 학력평가 시험인데, 중등교육수료자격과 대학진학자격을 동시에 심사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외에 내신성적도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영향력은 적다.

바칼로레아는 국가시험의 학력평가로서, 고교고사가 출제하고 채점하며, 문항의 형식은 논리적 사고력과 정확한 표현력을 측정하는 논술형이 대부분이며, 대개 한 과목당 1~2 문제 정도이다. 바칼로레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자연계로 구분되는 일반 바칼로레아, 공업기술 바칼로레아, 직업 바칼로레아의 세 가지가 있다.

고사 과목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지는데, 고등학교의 공통필수 과목인 프랑스어·사회·제1외국어·수학·물리·자연과학·체육 등 7과목이 중심이 되고 고교에서 독립된 교과목으로 제시되지 않는 철학을 전(全)계열 필수과목으로 부과하고 있다.

나. 전형방식

바칼로레아 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으로 합격할 경우 그랑제꼴(grandes ecoles)을 제외한 일반대학에 입학이 가능한 개방형이 있다. 그리고 바칼로레아 합격 후 2년간 진학 준비반을 거쳐 별도의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경쟁형이 있다.

또한 바칼로레아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방식이 있다.

4. 독일

가. 전형자료 및 시험유형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아비투어(Abitur)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시험은 필답고사와 구두시험으로 구성되고, 자연과학 분야와 예·체능계에서는 실기시험이 추가로 부가된다. 아비투어 합격자는 전국의 어느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할 수 있다. 지원자가 초과할 경우 ‘대학입학정원중앙관리소’(Zentralstelle für die Vergabe von Studienplätzen, ZVS)를 통하여 전국적인 입장에서 선발·배분된다. 특히 진학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의학·물리학·화학 등과 관련된 학과에서 입학정원 제한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경우 시험 성적이 높은 학생이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각 주마다 성적 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평균성적에 대비하여 성적을 환산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 아비투어시험 성적과 김나지움 상급반에서의 코스 이수 성적이 주된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활용된다. 특별 선발의 경우에는 적성테스트 결과가 전형자료

로 사용되기도 한다.

김나지움 상급반은 일반대학 입학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교과목들은 언어·문학·예술 분야, 사회학분야, 수학적 자연과학분야 등 3분야로 구분된다.

김나지움 상급반은 김나지움의 11-13학년에 해당되는데, 13학년 2학기(5월 중순)에 아비투어 시험을 치른다.

시험은 중점과목 2과목(제1·2과목)과 기본과목 2과목(제3·4과목)이다. 제1·2·3과목은 필기시험이고, 제4과목은 구술시험이다. 아비투어 시험에서 과목 낙제를 할 경우 다음 학기가 시작될 때에 재시험을 신청해야 하며, 아비투어 시험은 1회에 한하여 반복할 수 있다. 대학입학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비투어 시험 성적 외에도 12-13학년 코스 성적이 일정 수준이상이어야 한다.

다. 전형방식

아비투어 시험에 합격한 후 아비투어 성적표를 첨부하여 대학입학 지원서를 '대학입학정원중앙관리소'에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3가지 모형에 따라 입학사정을 한다.

첫째, 배정모형인데, 이것은 대학입학 지원자들은 제1지방 대학의 학과에는 입학 을 보증 받을 수 있으나 정원 초과시 다음 순서대로 입학 허가를 결정한다.

① 장애자, 기혼자와 자녀가 있는 지원자 ②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소재 하는 대학 ③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④ 부모 또는 피부양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신청한 대학, 이 대학에 자리가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지역의 대학에 입학이 허가된다.

둘째, 일반선발모형방식인데, 이것은 성적에 따른 우선 선발, 州별 할당 선발, 대기기간에 따른 선발, 旧 동독지역 지원자에 대한 특별배정 등으로 선발한다.

셋째, 특별선발모형은 다음 몇 가지가 있다.

① 적성테스트에 의한 선발 : 의학과에 지원할 아비투어 소지자는 김나지움 13학 년 때 의학적성시험을 보아야 한다. 지원자는 단 1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② 아비투어와 적성테스트의 조합 : 의학부 입학정원의 45%는 아비투어 성적과 적성테스트 성적을 합하여 우수한 순서대로 선발한다. 아비투어 성적과 적성테스트 결과의 반영 비율은 55% : 45%로 한다.

③ 테스트 성적에 의한 선발 : 정원의 10%는 테스트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한다.

④ 대기 기간에 의한 선발 : 정원은 20%는 대기 기간이 긴 순으로 선발한다.

⑤ 면담에 의한 선발 : 입학정원의 15%는 면담에 의하여 선발한다. 면담 대상자 선정은 대학입학정원중앙관리소에서 추천한다. 면담에 의한 선발에는 단 1회만 응시할 수 있다.

5. 일본

가. 시험의 유형

고학력 지향, 유명학교 편중 등의 풍조를 시정하고, 국·공·사립대학을 특색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치르는 공통 제1차 학력 시험이 있다. 1979년부터 국·공립대학 학생 선발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시험과목은 고등학교 필수교과 내에서 출제한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자격시험은 아니므로 합격·불합격은 없고, 다만 득점 결과가 대학입학을 위한 전형자료로서 활용된다.

1985년 ‘임시교육심의회’는 기본의 공통1차시험에 대신하여 국·공립, 사립대학이 모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통 테스트’를 새로 제정·실시하도록 제안하여 1990년부터 공통1차시험은 ‘대학입시센터시험’으로 개칭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우선 과목수가 크게 증가한 대신 대학 학부가 임의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과목 간 배점비율도 정할 수 있다.

나. 전형 방식

일본 대학의 73%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입시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어 출제 방식이나 입시일 등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여러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일반입시 이외에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추천 입시제도가 있는데, 고등학교의 내신성적과 학교 행사 및 과외활동 상황, 예·체능 특기 실력 등을 대학이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하게 된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송부된 조사서의 내신점수는 학교에 따라 평가치가 다르게 된다. 이 외에 에스컬에이터식 진학이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에 부속고교가 있는 경우 부속고교에서 일정한 성적을 얻은 학생이 자동적으로 그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이다.

6. 대만

대만에서는 “연합고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응시자격을 갖고 있는 자가 전국 규모의 시험을 보아서 시험 성적에 따라 지원하는 학과에 입학하는 방식이다.

전국의 고교 졸업생이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수험생이 전국을 한 학군으로 하여 전·후기 구별없이 한 번에 시험을 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성적순으로 학과를 배정하는 선시험 후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학연합고사에 응시할 경우 지방대학의 수(50여개교까지 지원 가능)는 그 폭이 상당히 넓으나, 대학입학연합고시위원회에서는 1개교만을 합격교로 지정한다.

등록을 포기할 경우는 이듬 해에 재응시해야 한다.

고교생이 전국적인 학력 테스트 결과와 내신성적에 근거해 우수한 학생을 별도로 추천 선발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 국의 대학입시제도의 공통점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양한 전형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은 자기의 시험성적 등을 가지고 여러 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입시제도가 자주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학생들의 선호순위에 따른 공동관리 방식을 사용하는데 영국, 독일, 대만 등이 그 예다.

IV. 현행 2000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절차의 주요내용⁷⁾

200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기본 방향은 각 대학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따라 다양한 대입전형제도를 마련·운영하여 대학의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두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각 대학의 입학전형이 학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며 학생의 진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만을 제시하는데 그치도록 하겠다는 전제 하에 ① 대학 자율적으로 다양한 전형방법 개발·시행 ②대학수학능력시험의 쉬운 출제로 학습부담 완화, 그리고 ③대학은 입학전형계획의 사전 예고제 준수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전형자료

학생선발에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가능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 고사, 지원자 제출 서류, 업적 및 경력 자료, 추천서, 기타 대학의 장이 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이다.

2. 모집대상별 전형유형

7) 교육부, “200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 1999

전형유형 및 방법으로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하되 특별전형은 ①취업자 전형 ②특기자 전형 ③ 기타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학생의 특별한 소질이나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전형 ④기타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차등적인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 전형 ⑤ 정원외 전형 등으로 하고 있다.

3. 모집시기

당해 대학의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매 학기별로 학생을 모집하고 학기별 모집인원은 당해 입학학기 개시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4. 모집 구분

수시, 특차, 정시, 추가모집과 이들 모집 간의 분할 모집을 대학별 자율 결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특차모집: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0% 이내

○정시모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4개의 시험기간 군을 선택하여 전형·모집

○수시모집: 특차, 정시, 추가 모집을 제외한 기간 중 대학이 자율 설정한 기간에 모집

○추가모집: 수시·특차·정시모집에서 미달·미등록 등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모집

아울러 신입생 모집을 위해 입학정보를 사전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복수지원을 금지한다든지(대학 및 교육대학 간) 이중 등록 및 특차 모집 합격자의 입학학기가 같은 다른 모집대학에 대학등록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V. 현행 대학입학 전형 절차의 문제점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대학입학전형제도가 그 동안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학생선발에 있어서 아직도 대학의 자율성이 미흡하다든지 평가척도의 다양성 부족,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 합격선을 결

정것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 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반영에 있어서 학교 간의 학력차 반영 곤란, 논술고사의 측정 한계, 학업성적 위주 전형의 타당성 결여, 그리고 입학전형제도 변경에 따른 정보 미흡 등의 지적이 그것들이다.⁸⁾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문제점 이외에 현행대학입학전형 절차 상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시 모집 복수지원제에 따른 추가합격발표가 지연되어 신입생 및 학부모 등이 최종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불편이 있고, 심리적 불안감과 부담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지원대학에 대한 기대 및 자긍심이 낮아질 수 있다.

둘째, 대학당국의 행정 사무처리상의 번거로움이 너무 크다. 수시모집 합격자, 정시모집 복수합격자들의 연쇄적 이동에 따른 사무절차의 번잡과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가 크다.

셋째, 대학의 교직원, 특히 대학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 교수들이 동원되어 연락 확인 등 관리 사무적 업무처리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전형절차에 대한 불평, 불만이 크다.

넷째, 모집 및 전형기간이 짧아 착오의 가능성이 높고, 특히 복수합격에 따른 결원 가능 인원을 예측할 수 없어 대학의 입시관리담당 부서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추가합격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등록, 미등록, 환불 등을 처리하는 데 많은 정력 낭비와 시간이 소모되고 있다.

VI. 2002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절차의 개선안(교육부)⁹⁾

1. 기본원칙

2002학년도부터 추진될 대학입학 전형절차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특성 및 모집단위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을 실시하여 대학을 특성화 시켜나가도록 한다.

8) 김신복·강무섭, 「고교 및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방안 연구」, 1998.

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자료집」, 1999

둘째, 대학의 무시험 전형제 도입 확산과 함께 초·중등학교에서도 학교 교육 정상화 노력을 한다.

셋째, 대학과 초·중등 학교 및 정부에서는 대학입학전형절차개선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인다.

2. 전형자료

모든 대학은 학생선발에 필요한 자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학교 생활기록부

- 모든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활용 여부를 자율 판단하게 한다.
- 학생들의 3년간 활동인 지(교과성적), 덕(품성, 봉사, 협동 등), 체(체력 등)를 종합기록하기 위하여 파일식으로 전환한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은 현행과 같이 수·우·미·양·가 형식의 평가(절대평가방식)와 과목별로 계열별 석차(상대평가 방식)를 모두 기록한다.
- 대학은 교과성적만 반영하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학생의 특기, 각종 활동, 각종 기록 등을 중요하게 반영한다.
- 교과성적은 대학의 특성이나 모집단위의 성격에 관련된 과목으로만 활용하는 등 학생들이 수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배려한다.

나. 대학자체 전형자료

- 대학은 학생선발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마련을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다양한 논술고사와 실기고사 등을 실시한다. 다만 대학별 지필고사를 시행할 때에는 국·영·수 위주의 고사는 실시할 수 없다.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 언어영역, 수리영역, 사회탐구영역, 과학탐구영역, 외국어영역 등 5개 영역으로 분리한다.
- 주관식 출제를 확대하고, 사고력 위주의 쉬운 출제방향은 유지한다.
- 총점위주로 석차화 되지 않도록 총점을 폐지하고, 영역별 점수만 표시하여 모집단위에 따른 영역별 반영을 유도한다.
- 등급제로도 사용할 수 있게 점수와 함께 등급(9단계)도 병행하여 제공한다.
- 기타 영역별 배점, 공통·필수과목, 문제은행 개발, 난이도 조절 등은 평가원이 책임지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별도 발표한다.

라. 면접

- 학력 이외의 인성, 가치관, 도덕성, 사고력, 지도력, 잠재력, 정의감, 협동심, 기초소양, 폭넓은 독서 여부, 의사표현 능력의 평가 및 제출자료의 확인을 위한 총체적 평가방법을 사용한다.
- 무시험 전형제에 따라 면접이 대폭 강화되는 대학도 있고, 간단한 면접 또는 실시하지 않는 대학도 가능하다.

마. 비교과 주요자료

- 생활기록부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많은 사항을 입학지원서에 기록하도록 요구하거나, 별첨 자료로 요구할 수 있다.
- 교내 학생활동, 특별활동, 사회활동, 동아리활동, 취업경력, 경시대회 수상경력, 효행수상경력, 특수기능 보유자 각종 자격증 등을 활용한다.
- 추천서, 수학계획서, 자기소개서, 학교의 특성, 간단한 에세이 등 요구도 가능하다.

3. 전형유형 및 방법

가. 특별전형 활성화

- 과거의 학생선발 방식은 일반전형에 의해 한 가지 척도와 기준에 의하여 석차화하여 선발함으로써 다양한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경시하게 되었다.
- 특별전형에 의한 학생선발 비율은 대학 자율 사항이나 개별 대학에서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별전형 유형을 많이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권장한다.
- 특기나 수상실적·실업계고교·산업체 근무 등 경력에 의한 특별전형과 특수교육 대상자, 농어촌출신자, 소외계층 대상전형 등 보상적 차원의 특별전형 모두 채택하도록 권장한다.

나. 대학의 독자적 학생선발방법

- 대입전형의 다양화·특성화는 대학의 독자적 학생선발 방법의 꾸준한 개발 노력에 의해서 축적한다.
- 시험점수에 의한 서열화를 가급적 자제하고, 특기·봉사활동·면접·각종 서술자료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고 합리적인 전형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무시험 전형제 도입으로 시험성적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비교과 영역이 다양

한 자료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독자적 학생선발 방법의 확산을 촉발시키고 있다.

다. 전형 일정

- 대학은 연중 학생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전형일정을 분산시켜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여유있는 전형일정을 확보하고 대입전형 다양화의 여건을 마련한다.
- 학생선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모집구분을 수시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크게 나누어 운영한다.
 - 시험성적 우수학생 유치경쟁으로 전략한 특차모집은 폐지한다.
 - 수시모집에는 조기모집·예약입학·추가모집 등을 모두 통합한다.
-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고 등록기간에 등록한 학생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하여 수시모집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 3학년 1학기에 선발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10% 이내) 특별한 학생을 예외적으로 선발한다.
- 수시모집은 1학기말과 2학기말에 각각 등록기간을 두어 수시모집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 정시모집은 현재의 4개군에서 3개군으로 축소하여 운영한다.
 - 현행과 같이 동일 군내에서는 1개대학만 지원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한다.
 - 미등록 충원문제 해소를 위한 공동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라. 정시 모집 공동관리 방안 모색

현행 정시모집 복수지원제에 따른 미등록과 추가등록 업무의 폐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추가합격 발표 대기기간을 없애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공동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2002년 대입개선안은 현행 대입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측면에서 종전보다 드러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 위주」에서 탈피하여 특기가 있거나 교내 학생활동,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 학생들이 대학에 쉽게 진학하도록 길을 터 놓고 있다. 수능성적과 내신 반영을 최소화하는 대신, 봉사활동이나 특기 등 「비교과 과목」과 자기 소개서, 추천서 등 여러 전형 자료 등을 통해 종래의 성적 위주의 ‘우수 학생’ 개념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학생 선발 방식은 수능, 학생부 등의 점수를 합산, 석차순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 왔으나 2002학년도부터는 지원자를 전형요소별로 몇차례 거르는 다단계 전형이나 한 가지 전형자료 만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모집인원을 나눠 각기 다른 전형자료별로 선발도 가능하다.

셋째, 특기나 각종 대회 수상실적, 산업체 근무 등 경력에 의한 특별전형이 늘어나 소외되고 불리한 여건에 있었던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보상적」 차원의 특별전형이 확대된다.

넷째, 학생생활기록부의 성적 반영은 의무화에서 자율화로 바뀌되 대학이 교과성적만을 반영하던 관행에서 탈피, 학생의 특기나 각종 활동기록 등을 중요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생활기록부를 지금처럼 성적과 출결상황만 나오는 한 장 짜리 보다는 여러 장으로 만들어 종합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학생을 연중 수시로 선발하게 된다. 학생선발의 효율성을 위해 모집을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이원화되, 특차모집은 폐지하고 조기모집과 예약입학, 추가입학을 모두 수시 모집으로 통합했다. 정시 모집 입시기간은 현행 4개 군(群)에서 3개군으로 줄어들고 같은 군내에서는 복수지원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요컨대, 2002학년 대입제도는 본고사위주의 필기시험을 지양하고 무시험전형을 전제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전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적보다 특기나 창의력 육성 등에 초점이 두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학입시제도는 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풍조가 계속되는 한, 그리고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전형 절차가 개발·적용되지 못할 경우, 그리고 새로운 제도에 걸맞는 학교 교육

<표 -1 >현행 대학입학 제도와 2002학년도 입학제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선발기준	· 시험성적	· 성적 비중 대폭 축소. 특기, 활동, 품성 등 다양화
고등학교	· 입시위주 준비기관	·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
학생부	· 국,공립 의무반영 · 성적위주 1장짜리 · 총점위주 반영	· 모든 대학 자율 · 지, 덕, 체 등 모든 활동을 기록하는 파일식 · 모집단위별 관련 일부과목
본고사	· 국, 공립 금지	· 국, 공, 사립 모두 금지
수능시험	· 주로 획일적 점수 반영 · 3개영역 · 소수점 및 총점 · 영역별 점수	· 자격기준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 · 5개영역 · 폐지 · 영역별 점수와 등급제(9등급)
고등학교 평가	· 객관식 일변도	· 주관식, 수행평가 병행(평가원도 보조자료 제공)
면접	· 형식적 면접	· 심층면접
비교과	· 출결사항, 행동발달 사항	· 봉사활동, 특별활동, 동아리, 취업경력 등 다양
컴퓨터교과	· 미반영	· 정보소양인증 여부 선택반영
전형유형	· 일반전형+특별전형	· 무시험 전형 증가, 특별전형 확대
추천	· 교장추천제	· 교장, 교사, 체육감 등 다양한 추천
기록요구	· 주로 학생부 기록	· 자기소개서, 추천서, 수학계획서 등 다양한 기록
모집구분	· 수시, 특차, 정시, 추가 · 합격자도 정시지원 가능 · 특차모집 · 4개군	·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 · 등록하면 정시에 지원 불가 폐지 · 3개군, 공동관리 도입 추진
주요선발 방법	· 시험성적 중시 · 총점위주 석차화 · 시험 위주 과외 성행	· 시험비중 최소화, 다양한 자료 · 석차화 억제 · 특기, 적성, 흥미 등 학생 개성 있는 학습과 활동에 치중

자료: 조선일보, 1998. 10. 20.

현장의 변화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학년도 새 입시제도는 우리의 교육정상화와 전인교육확대,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Ⅶ. 2002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자 결정 공동관리 방안

지난 '98. 9. 교육부에서 발표한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절차 개선안(모집시기, 전형방법, 전형요소 등)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앞으로 중점적으로 논의 검토되어야 할 과제를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관리 기구 설치, 운영

앞으로 각 대학에서 수시모집을 통해 학생들을 연중 내내 모집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생입학의 양상이 지금보다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수시모집의 길은 더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학생선발 시기 상의 한계, 대학의 행정사무 부담증가 등으로 인해 정시 모집이 여전히 대학전형의 주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¹⁰⁾. 비록 수시모집에 합격한다고 해도 미등록 등을 예상하면 최소한 70%의 지원자들이 정시모집에 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여전히 복수지원 및 추가합격에 따른 혼란과 비능률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관리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협의회 내에 가칭 「대학입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합격자 결정을 위한 공동관리 콘소시엄을 운영한다.

2. 공동관리 절차(방안)

○ 정시 모집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은 지원대학 및 모집단위에 대한 합격 희망 순호 순위(3~4개 대학까지)를 명시하는 '입학지원 공동원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만약 1개 대학만 지원하는 경우도 작성한다.

○ 각 대학은 이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집단위별 전체 지원자의 종합성적순위표와 모집 인원표를 공동관리기구인 '대학입학지원센터'에 제출한다.

○ '대학입학지원센터'에서는 지원자의 순호 순위에 따라 1개 모집단위에만 합격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하여 각 대학에 통보한다.

○ 각 대학에서는 '대학입학지원센터'에서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10) 2002학년도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조사한 각 대학의 모집시기별 인원을 보면, 수시모집이 전체 정원의 35%(1학기 4%, 2학기 31%)로, 정시모집에서 65%를 선발할 계획으로 나타남

발표하도록 한다.

○ 정시모집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거나 합격생이 등록하지 않는 대학은 추가 합격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나머지는 수시 모집을 활용하도록 한다.

○ 정원의 특별전형은 공동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유형이 다양하고 소수에 해당하므로 실효성이 적음). 가능한 정원의 특별전형은 수시모집으로 한다.

3. 입학지원 공동원서 접수 방안

효율적인 대학입학지원 공동원서 접수를 위해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학입학지원센터’에서 개발한 공동원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서 접수시, 별도로 밀봉하여 지원대학에 접수시키도록 한다. 이때, 여러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순위 희망대학에는 공동원서 원본을, 여타 후순위 지원대학에는 사본을 접수시키도록 한다.

둘째, ‘대학입학지원센터’에서 개발한 공동원서를 제1순위 합격희망순위로 기재한 대학에만 원서접수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한다. 각 대학은 일단 접수된 공동원서 수만 확인하여 ‘대학입학지원센터’에 제출한다.

셋째, 학생이 작성한 공동원서를 출신학교별로 수합하여 시·도교육청을 경유하여 ‘대학입학지원 센터’에 제출한다.(기초전형 자료는 지원대학수만큼 복사본 첨부)

첫 번째 방안의 경우 학생들의 공동원서 접수에 따른 불편과 착오를 예방(사전에 검토할 수 있음)할 수 있으나, 지원대학마다 여러 장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둘째 방안의 경우 첫째 방안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나, 공동원서 작성 내용과 실제 지원대학간의 착오 발생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하위권 대학의 경우 자긍심을 훼손하는 등 혼란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셋째 방안의 경우 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의 업무량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공동원서를 고등학교에 제출한 후 실제 접수대학을 변경할 경우 다시 공동원서를 수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이든 대학에서의 입시관리 업무수행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추가합격자 발표 및 연락확인, 환불조치 등 미등록

충원업무가 크게 해소됨으로써 2월말까지 진행되던 전형업무가 2월초에 종료되고 새학기를 위한 학사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도 최종합격 여부를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등록 및 환불에 따른 불편이나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가’군 모집원서 제출시 다른 ‘군’의 지원대학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종래와 같은 접수장에서의 눈치작전은 줄어들 것이다.

4. 합격자 결정방법

대학입학지원센터는 지원자가 공동원서에 기재한 순위별로 각 대학이 제출한 모집단위별 합격범위에 의거 합격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전산으로 판별하여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합격후보자로 결정하여 해당대학에 통보하면 각 대학은 이에 따라 합격자를 발표한다.

5. 시범운영 및 관련법령의 정비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학생전형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공동관리 방안을 2001년 재외국민대학입학 전형 등에 시범적으로 도입해보고 2002년 정시 전형 모집에 적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의 실행을 위해 공동원서 제작이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시뮬레이션, 조직적인 홍보 및 해설 등이 필요하다.

정시전형에서의 공동관리를 위해서는 대학간 협의를 통하여 모든 대학들이 참여가 요청될 뿐만 아니라 일단 합격자로 결정된 모집단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변화는 물론이고, 각 대학의 창의적 노력, 입시전형절차에 대한 학부모, 국민들의 신뢰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잦은 제도개혁을 통한 혼란을 유발하기 보다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선을 통한 착근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능률과 혼란, 낭비를 줄일수 있는 공동관리방안에 관한 구체적 방안과 실행계획이 활발히 논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제3회 대학교육정책포럼 토론 내용 요약

주 제 : 21세기 대학입학관리체제의 발전방안

일 시 : 1999. 9. 29(수) 13:30~17:00

장 소 :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

참석인원 : 입학관련 처(실)장 등 약 250명

사 회 : 박찬석(경북대 총장)

토론1. 이경숙(이화여대 입학처장)

- 2002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수능점수 1,2점으로 선발하기 보다는 특성화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바람직함
- 현행입시제도의 문제
 - 입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등에서는 너무 쉽게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함.
 - 2002학년도는 무시험제도라는 것은 것은 고등학교에 나쁜 영향을 미침: 즉, 공부안 하는 아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문제
 - 수능시험을 쉽게 내겠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의 대학생들에게 유리하여 이들로 하여금 재수를 하도록 유도하기도 함.
 - 무시험으로 대학에 가는 나라는 없음.
 - 특기자는 30-40%이고, 나머지는 종합점수로 평범한 학생들이 대학에 감.
 - 무시험이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교사를 불신하고, 대학을 불신하는 한 2002학년도 입시개혁은 실패함.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임.

토론2. 정창현(중등고 교장)

- 새 대입제도의 시행목적은 매우 바람직하며,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학생의 과도한 학습부담 경감
 - 전인적 인간육성으로 더불어 사는 교육
 - 창의적 인간육성으로 개인의 특기 소질 개발

-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 초·중·고 교육의 정상화

□ 현안문제는,

-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교실이 무너지고 있음.
- 학습부담 경감, 전인적, 창의적 인간육성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 고등학교에서 개인특기 개발은 10%임. 그리고 사교육비는 더 들고 있음(8학군인 중 동고 경우 학생당 월 20만원정도 들고 있음).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충수업을 법으로 막고 있어 좋은 시설, 교사진들이 있음에도 학원으로 학생들이 빠지고 있음.
- 무시험 전형이란 용어로 인하여 공부안해도 된다는 분위기 확산되고 있음.
- 학력저하로 인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해결방안

○ 대학

- 대학은 백화점식 교육을 지양하고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필요
- 다양한 선발방식 필요 : 공동관리제 필요
- 선발방식의 공정성 확보

○ 고등학교

-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간섭이 줄어야 함.
- 교육과정이 너무 많고 백화점식이고, 어려움: 230일 수업에 하루에 7-9시간 수업함.
- 특기 적성교육은 교사들의 자질이 안됨
-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 필요(인문고: 대학입시, 실업고: , 특목고)
-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없음(공정한 평가 미흡).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신뢰없음.

⇒ 해결방안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GNP 대비 현재는 4.3%임. 헌법에 6%로 명기

- 사교육비 약 17조 정도, 외국에 유학중인 유학생 7만명의 교육비 약 17조
- 교원의 보수체계 개선
- 평준화문제 해결(개성있는 교육 필요)

토론3. 김정금(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관건임.

○ 허 형 교수님 발표는 매우 이상적임.

○ 교육의 가장 문제점은 비정상적인 대학의 서열화임 - 대학간 경쟁구조에 의한 서열

화가 아닌 명문 대학에 들어가면 사회적으로 유리한 구조이므로 이를 위한 무한경쟁 상태임.

- 2002학년도 입시환경에 대한 전망은 너무 낙관적임. 그러나 우리교육을 왜곡시키는 것은 명문대학으로 가기 위한 것이 더 결정적인 이유가 됨.
- 명문대에 대한 열망이 바뀌지 않는한 명문대 진학을 위한 경쟁은 여전할 것임.
- 2002학년도 입시가 다양한 특기 적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대학서열화가 고정되고 명문대 진학을 위한 무한경쟁 상황에서 교사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실제로 수행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 교사, 학부모, 학생).
- 수행평가 및 추천제를 둘러싼 학부모들의 치마바람이 심해지고 있음.
학교에서는 발전기금에 대한 부담까지 느끼고 있으며,
각종 경시대회가 난무하고 있으며, 경시대회 준비를 위한 학원도 등장하고 있음.
- 명문대 지향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입시제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왜곡된 입시제도의 현실에서 아이들이 벗어날 수 없음.

□ 비정상적인 대학서열화를 해결하고 왜곡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대학서열화를 깨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함.

- 대학의 서열화를 깨고 대학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체제보다는 대학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 고등학교에서의 평가는 느슨하게 하고,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함.
-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명문대 진학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임.
- 대학입학공동관리제에 대해서는 동감함.

사회 : 인재지역할당제 필요

토론4. 윤웅섭(서울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우리 대학은 지금까지 선발적 기능에만 치우쳐 문제가 있음. 2002학년도를 제외하고는 11번의 입시제도의 변천은 대학에서 어떻게 우수학생을 객관적으로 선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 그래서 우리교육은 사교육비의 대폭증가, 학교교육의 파행 초래

- 개인의 발전 및 국가경쟁력에서 심각한 문제 도출
- 대학의 우수학생 선발기준이 고등학교의 교육을 좌우함 - 지금까지는 주지교과의 성적이 높은 학생이 우수 학생으로 인정받은 결과 국가에서 제시하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보다는 입시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주지교과의 성적을 올리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
- 대학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수준으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수준을 높이는 것이 타당
- 입시제도의 단순한 변화를 통하여

□ 바람직한 입학전형제도

첫째, 현행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문자 그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로 정착해야 함.

대학은 최소한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제시, 최소한의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학과성적을 요구하지 않음. 그리고 가르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가장 잘 평가하는 것이므로 수능시험문제 출제는 고교교사들에게 맡겨야 한다.

둘째, 다단계 입시전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대학별 육성 인재상에 근거하여 일부를 선택하여 필요한 단계를 거쳐 선발

셋째, 대학은 대학입시전형자료에 대해서는 3년전에 미리 예고해서 이에 대한 준비를 안 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함.

넷째, 각 대학의 학생 모집시기는 다양화하는 것은 바람직함.

다섯째, 입시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을 통하여 공동관리하는 것은 필요함.

다만 이 기관은 대학입시와 관련이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해야함.

⇒ 대학입학제도가 잦은 변경보다는 개선을 통한 보완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토론5. 박주석(서울산업대 교무처장)

□ 사회가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원화된 사회에 적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 각 분야에 선천적인 소질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
- 선천적인 소질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교육을 통해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 선발
-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상위권 대학의 몫이며, 중하권 대학은 들러리임.

□ 전형자료의 문제

-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간 학력차가 매우 크며, 중하위권 대학은 비슷비슷한 학생들만 오게 됨.
 - 고등학교에서의 절대평가의 문제와 공정성 문제
 - 학교자료는 신뢰에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수학능력시험
 - 국가가 시행하고 있어 신뢰성은 있으나 쉽게 출제한다고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음.
- 면접
 - 면접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접을 점수로 환산하여 입시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즉, 몇 분동안에 인성, 기치관, 도덕성, 사고력, 지도력, 잠재력, 협동심 등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
- 다단계 전형 자체도 하위권대학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형을 상위권 대학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위권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이 어려움
- 비교과 주요자료
 - 비교과 자료 또한 공정성이 가장 문제이고, 학교간 격차가 크다.
 - 입시관련 문제 발생시 무더기 소송사태와 검찰에서 수사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량화할 수밖에 없다.

□ 해결방안

- 신뢰성을 쌓아 가면서 확대해야 한다.
- 수능시험을 매학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학생의 수준 파악이 필요함
- 수시모집도 상위권 대학에 유리한 것이며, 중하위권 대학에는 그림의 떡임.

□ 참가자 토론

- 대학입학전형 공동관리 방안은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음.
- 공동관리방안은 입학전형절차를 더욱 번잡하게 할 수 있음.
- 공동관리방안은 입학전형제도를 더 이상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함.

※ 답변(대교협 정책연구부장)

- 학생들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각 대학에 지원하고, 그 내용을 우선 순위대로 3개 대학정도 기재하는데 불과하므로 대학서열화를 조장하지 않음.
- 공동관리방안은 복수합격에 따른 등록, 환불, 연쇄적인 추가 등록 및 환불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현재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끝.